삼위일체의 특산물과 십자가

(이사야 53:1~12)

1.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2.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삼위일체의 특산물과 십자가>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삼위일체의 특산물과 십자가'

얼마 전에 안 사실입니다만 전국에 유통되는 참외의 70%는 경상북도 성주에서 재배된다고 합니다. 성주에 계시는 분들은 참외에 인생을 걸고 부자가 되기를 꿈꾸며 사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참외들이 자꾸 성주 참외로 둔갑해서 시장에 풀렸고 성주 참외를 재배하시는 분들은 손해가 막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 2월에 조폐공사가 성주군청과 참외 위조방지 라벨을 제조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성주 참외 박스가 개봉되는 부위에 특수한 라벨을 붙이게 됩니다. 이 라벨은 복사나 스캔이 되지 않습니다. 위조품에는 반드시 'COPY'라는 문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정품 라벨이 붙은 것만 성주 참외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라벨은 박스를 개봉하면 찢어지기 때문에 다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조폐공사가 위조지폐를 방지하기 위해서 발전시킨 기술이 특산물 보호를 위해서도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9월에는 전라도 나주에서도 특산품인 배를 보호하기 위해 조폐공사와 같은 계약을 했

다고 합니다. 참외와 마찬가지로 포장을 속이는 방식으로 전국에서 유통되어 피해를 입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위조방지가 필요한 곳은 비단 특산품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화장품이나 의약품 같은 것들의 위조품이 넘쳐납니다. 이런 곳에도 조폐공사가 만드는 라벨을 붙여서 위조를 가려내고 방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죄악 된 세상'이라는 말을 하는데 대체 죄악 된 세상이 무엇일까요?

표현 자체는 많이 쓰지만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는 합니다. 사람들이 범죄를 많이 일으키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만 100점짜리 답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악 된 세상은 사랑과 기쁨을 위조하는 것입니다. 죄악 된 세상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것도 그만큼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기쁨을 무시해왔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들고 다니며 설교를 하지만 정작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사랑과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대표적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랑과 기쁨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 안에서만 생산되는 특산물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거나 받으려면 혹은 기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외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며 기쁨을 향해 질주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산물이 사랑인데 이 관계에 참여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관계에 참여하지 않고는 기쁨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랑과 기쁨을 말하며 이것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이것이 죄악 된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 받으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1~3절을 보면 내용이 의아합니다.

1절을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전해진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개입하심이 누구에게 받아들여졌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의 일입니다. 이때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등장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오셔도 그들이 반기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선민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여길지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다'라는 말은 마치 구약시대의 나병환자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나병환자에 대한 대우는 처참했습니다. 스스로 부

정하다고 외치지 않고 일정거리로 접근한다면 돌로 쳐 죽여도 되었을 정도입니다. 또 부정하다고 소리치는 나병환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이러한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민들은 그렇게 기다렸던 해방과 구원을 주실 메시아를 왜 싫어하게 된다는 것일까요?
3절에서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간고'는 슬픔이며 '질고'는 질병입니다. 슬픔을 겪고 병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느끼시는 인간들의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들의 상황을 슬프게 느끼시기에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선민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의아해하며 멸시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느끼는 슬픔과 예수님이 느끼는 슬픔의 내용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느끼는 슬픔과 우리가 우리에게서 느끼는 슬픔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슬픔의 내용이 달랐다는 것은 기쁨의 내용이 달랐다는 것과 상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웃으실 때와 우리가 우리를 보고 웃을 때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통으로 느끼는 질병과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병 또한 달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사람들 간에 기쁨과 슬픔의 의미가 달랐고, 고통을 가져다주는 질병의 의미가 달랐기에, 예수님이 주시는 해방과 구원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던 해방과 구원이 자신들이 바랐던 것과는 달랐기 때문에 다른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리게 되고 말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우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 선민들은 자신들이 울어야 될 상황에 처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회의에 찬 심정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는 예언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소중합니다. 이 단어들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 때에 십자가의 의미도 깨달아지고 생활화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어서 4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3절 말씀과 거의 일치합니다. '간고'는 슬픔이고 '질고'는 질병이라고 하였습니다. 3절의 내용을 받아서 4절에서는 질고를 병으로 다시 받으신 것이고 간고는 슬픔으로 바꾸었습니다.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하였습니

다.

3~5절까지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해서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데 그것이 바로 허물과 죄악입니다. '허물'은 슬픔과 연결되고 '죄악'은 질병과 연결이 되는데 이를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먼저 허물은 히브리어로 페샤(פֶּשַׁע, Pesha`)로 '반란을 일으키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간들을 슬프게 보시는 이유는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슬픔은 기쁨의 반대입니다.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슬픕니다. 쉽게 말하면 이 반란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기쁠 수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이게 허물입니다. 물론 선민 누구도 이런 말을 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삶의 내용이 이러한 반란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인이 장사가 잘 돼서 기뻐합니다. 두둑해진 돈주머니를 어루만지면서 마음으로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반란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에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기쁠 수 있다. 돈만 많이 벌면 기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서울대에 합격한 자녀를 둔 부모가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영적으로는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봐라!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기쁠 수 있다.'라는 마음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 온 가족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순간에 영적으로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났다고 기쁨이 없나? 천만의 말씀, 아기가 태어나서 너무나 기쁘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기쁠 수 있다'라는 마음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시며 슬퍼하십니다. 이것들이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사람들이 이것을 기쁨으로 믿고 있을 뿐입니다. 기쁨으로 믿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소원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순간적으로 채워짐을 느끼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본래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아기가 채워줄 수 없고, 서울대학이 채워줄 수 없고, 흑자가 채워줄 수 없습니다. 금세 공허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 공허함이 완벽하게 느껴지는 곳이 곧 지옥입니다. 지옥에 가면 그동안 얼마나 부질없는 짓을 했는지를 고통가운데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장사가 잘 되어도, 자녀가 서울대학에 합격해도, 아기가 태어나도 시무룩하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동안 장사가 잘 되면, 그 번 돈을 어떻게 써야할지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동안 자녀가 서울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진정한 의미에서 감사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 기쁜 자는 서울대학에 들어간 자녀가 교만할까 걱정할 것입니다. 욥은 열 명의 자녀를 위해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유복함으로 인해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킬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허물로 번역된 히브리어 페샤는 슬픔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기쁨을 위한 반란이기

에 하나님께는 슬픔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이 생소하게 여겨진다면 우리가 그만큼 복음에 대해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다가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실천하다보니 기존에 교인들 앞에서 설교할 때에 과연 복음을 알고 설교 했는가?'라는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허물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짊어지신 슬픔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인간 세상에 대해 가지고 계신 슬픔을 예수님이 다 끌어안으셨던 것입니다. 그 슬픔은 반란으로 인한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기쁠 수 있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입으로는 표현을 하지 않았더라도 삶에서 이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으로 기뻐하려 하는 모습은 얼핏 당연해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사업으로 만족할 수 있다, 사업이 성공해야 아내와 자녀들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숨어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이라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죄악은 히브리어로 아원(עָוֹן, 'awon)으로써 '비틀다, 굽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나온 질병과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반대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가짜 사랑이 죄악이고 비틀려진 것입니다.
무엇이 비틀렸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피조물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가깝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가까울 수 없습니다. 부모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도 하나님보다 가까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상과 밀착하려다보니 마음은 하나님께로 곧바로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비틀어진 상태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떠한 생각을 하든 실제로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마치 내 몸에 귀가 달려 있는 것처럼 내 마음 가장 가까이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취직 문제나 결혼 문제를 가장 가깝게 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피해가야 합니다. 이럴 때에 마음은 비틀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악은 하나님을 피해 비틀린 마음입니다.
이 허물과 죄악이라는 단순한 단어에 이렇게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허물과 죄악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왔지만 이것이 가진 뜻은 실로 깊습니다. 이 비틀림의 반대는 정직입니다. '마음이 정직하다'라는 것은 곧 제일 먼저 와계신 하나님과 밀착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계신 자를 피해가기 위해서는 마음은 비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찔리신 곳을 살펴보면 머리는 가시면류관으로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창에 찔리셨습니다. 또 손과 발이 못에 찔리셨습니다. 배는 우리의 소원과 욕구가 발생하는 지점을 상징합니다. 욕심을 부리는 사람을 보고 배를 채우려고 한다는 말을 합니다. 기쁨을 향해 가는 첫 출발점이 바로 마음의 배인 것입니다. 또한 머리를 가시면류관에 찔리신 이유는 배를 채우기 위한 생각과 계획이 머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쁘기 위해 소원을 가지면 머리를 써서 계획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찔리셨습니다. 계획이 생겨나면 손발을 움직여서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허물 즉 반란에 동원하는 부위들에 대신 찔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무척이나 논리적이고 과학적입니다.
이어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내적 외적 모든 활동은 기쁨을 행해 움직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악 즉 비틀림에 대한 징계로 상함을 당하신 것입니다. 상함은 곧 파괴됨입니다. 예수님의 감정과 정서와 인격적 상태가 모두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두려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실 때에 예수님의 인격도 파괴되어버릴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파괴되는 것은 단순히 그 육체가 손상되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나인 성 과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욥을 파괴하는 것은 그가 중요시하던 가족과 재산과 건강과 명예를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붙어있던 것들이 떨어져나갈 때에 파괴됩니다.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뒤틀어진 마음에 밀착해 있던 것들이 떨어져나가니 살아갈 의미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파괴된 상태를 자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채찍에 맞아 살이 다 찢어지셨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살이 된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를 마음에서 붙잡는 것은 대표적인 잘못된 사랑입니다. 자녀가 마음의 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비틀어진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찢어내야만 합니다. 생살을 찢는 아픔이 동반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내 몸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견딜 수 없음을 아시기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에 이 모든 고통을 대신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그 막대한 고통을 당하지 않고도 마음에 붙은 살을 떼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은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마음에서 가족이든 재물이든 살이 되어서 붙어버린 모든 것들이 떨어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본래의 상태로 돌아온 마음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길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 품에 안겨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산물인 사랑과 기쁨을 공유하도록 허락 받게 됩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은 오직 십자가 사건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았습니다. 반란과 비틀림으로 가득 차버린 나의 삶은 가짜 사랑과 가짜 기쁨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중지하고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본래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